



울독이 소중한 까닭(1)

한동해 포럼 Newsletter, 9월호 Vol.2

울독

2020.09.15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비극은 반복된다.

정진호 교수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 회장)



우리 나라는 반도 국가이다.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히는 곳이다. 그로인해 우리 근현대사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항상 제국의 먹잇감이 되곤 했었다.

1904년,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러시아와 일본의 충돌은 필연적이었다. 극동의 기반을 얻기 위해 남하하려는 러시아와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조선을 먼저 침탈하고자 하는 일본이 맞부딪힌, 제국의 충돌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 전쟁은 영미 두 제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서구 자본주의를 충실히 받아들여 급성장하고 있었던 아시아의 총권 일본을 뒤에서 조정하며 치른 대리전이기도 했다. 10년 전 조선에서 일어났던 청일 전쟁이 부패한 청조를 무너뜨리고 신해혁명을 일으켰던 것처럼,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전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 방아쇠를 당김으로써, 결국 오랜 부패에 신음해온 차르(황제) 통치의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린 결과를 낳았다. 20세기를 풍미했던 냉전 시대의 두 거대 공산주의 국가 소련과 중공이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의 연쇄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이 두 전쟁은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20세기 역사의 지축을 바꾸었다.

요동반도의 여순항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빼앗은 곳이었다. 그러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인 소위 '삼국 간섭'으로 말미암아 여순항은 다시 청나라에 반환되었다. 그 후 러시아가 4계절 부동항을 얻기 위해 청나라로부터 여순항을 조차하고 태평양 함대를 그곳에 주둔시키자 그에 발끈한 일본

은 제국 함대를 출정시켜 러시아 함대에 어뢰를 발사함으로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 함대를 지원해야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베리아 철도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였는지라 내륙에서 전쟁 물자를 수송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러시아는 북유럽의 발트 함대를 출정시켰다. 그러나 1902년 맺어진 영일 조약에 의해 영국은 일본을 돕기 위해 수에즈 운하 통과를 거부하였다. 결국 발틱 함대는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영 제국의 식민지에 속한 여러 항구에서는 발틱 함대의 입항까지 거부하며 보급을 차단하였다.

러시아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영양실조 상태로 긴 항해를 지속하였고 결국 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여순항은 함락되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중간 해로를 차단하기 위해 울릉도와 독도를 강점하여 망루를 세웠으며 독도를 시마네현에 부속된 섬 다케시마로 귀속시켰다. 제물포 해전, 압록강 전투, 황해 해전에서 연이은 승리를 거둔 일본군은 여순항을 함락시킨 후 봉천(심양)으로 치고 올라갔다. 뒤늦게 도착한 발트 함대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길목에서 쓰시마 해협을 통과하고자 하였으나 38척의 군함이 거의 전멸하며 5,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내는 참패를 당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를 빼앗음으로 동해의 해군력을 장악한 일본이 대 제국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다.

러일 전쟁에서 두 나라 군사들의 위생 및 영양 상태가 승패를 갈랐다는 말이 후일담으로 전해졌다. 보급이 끊긴 채로 긴 항로에 지친 러시아 군인

들은 귤과 같은 과일과 채소를 먹지 못해 비타민 결핍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었다. 반면 만주에 파병된 일본군이 티부스군에 감염되어 죽어나갈 때 육군 군의학교 도츠카 교관이 크레오소드가 그 병에 탁월한 억제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전장에 나가는 일군들에게 이 약을 매일 투입하였다. 그로 인해 러일전쟁의 승리 후, 이 약은 로씨아를 정복한 약이라는 의미의 '정로환(征露丸)'으로 불리게 되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국계 유대인 금융제벌 제이콥 쉬프였다. 그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잔인하게 핍박하며 집단 학살하던 제정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전쟁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일본에게 2억 달러의 용자와 500만 파운드의 전쟁 공채를 매입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정한 것은 26대 미국 대통령 시오토르 루즈벨트였다. 러일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05년 7월 미 국무장관 태프트는 이미 일본 내각총리 가쓰라 다로와 만나 필리핀을 미국이 지배하는 대신 대한제국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한 신사협정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태프트는 필리핀 총독을 역임했던 사람이었고, 훗날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 미국 27대 대통령이 되었다.

포츠머스 회담에서 러일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 회담을 이끌어 내었다는 공로로 미국의 시오토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미국의 국익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하나이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과 더불어 싸우스 다코다 주의 큰 바위 얼굴에도 조각이 된 인물이며 미국인 최초로 노벨상



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영광은 약소국 대한제국과 필리핀의 식민지 지배를 담보로 하여 얻어낸 강자의 전리품이었다. 유대인 제이콥 쉬프는 일본 정부에 국민으로 초청되어 메이지 천황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욱일대수장을 받았다.

동해의 외딴 섬 울릉도와 독도는 한반도의 비극적 근현대사의 폭풍우 비바람을 처음으로 맞닥뜨린 섬이다. 영미일 제국주의와 러시아의 전쟁 결과로 이어진 볼셰비키 혁명은 장차 한반도 분단의 불씨를 놓았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는 끝없는 먹잇감, 희생양, 그리고 열강의 전쟁놀이터가 되곤했다. 이제 우리는 그 피맺힌 역사의 굴레를 부수고 일어서야 한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함께 만나 새로운 역사의 패러다임을 세워가야 한다. 남북이 자발적으로 연합하면 4대 열강은 당황한다. 남북우호도시 연합을 통해 평화경제를 만들어가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그 누구도 알보지 못하는 반도세력으로 올라서야 한다. 동해를 21세기의 지중해로 만들어가

는 중심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 유라시아 한동해 포럼이 있는 것이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그 비극이 반복된다. 우리의 울독이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9월 3일과 9월 7일 울릉도를 연달아 강타한 태풍 마이삭과 태풍 하이선으로 울릉도 태풍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태풍 마이삭은 기상청 울릉도 해양기상부이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인 19.5m를 기록하면서 50톤의 육중한 테트라포드를 터널 내부로 옮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태풍으로 울릉도 사동항 방파제가 200여 미터가 유실되었으며, 사동항에 정박중이었던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던 300톤급 여객선이 월파와 강풍으로 전복되었습니다. 심지어 남양항에서는 육상으로 대피하였던 10여 척의 소형 선박들도 항구의 월파로 침몰하거나 파손되었습니다. 울릉도 해안도로 훼손도 심각합니다. 1년 예산이 불과 2000여억원에 불과한 울릉군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최소 약 600억원의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주민도, 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김운배 대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그러나, 울릉도 주민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태풍 피해보다 섬 주민들로서 소외감이었습니다. 울릉도는 언론에서 흔히 태풍이 동해상을 빠져 나간다고 보도할 때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의 시작입니다. 언론에서는 또다시 울릉도를 유령 섬 취급하였습니다. 울릉도는 육지와 교통, 교육, 문화, 의료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1년에 120여 일 넘게 여객선이 결항되고, 의료 여건이 열악하여 수시로 응급환자들이 헬기로 내륙으로 수송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하시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태풍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 앞에, 열악하기 그지없는 울릉도의 현실 앞에 울릉도 주민들은 묻습니다. 울릉도도 대한민국입니까?



섬은 한반도 내륙과 다르게 매우 특별한 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 재해를 가장 온몸으로 견디고 있으며, 또 어느 지역보다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섬 주민들은 대한민국 전체에게 다가오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를 가장 먼저, 가장 엄혹하게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울릉도에, 섬에 우리의 아버님, 어머님, 삼촌, 누님이 살고 있습니다. 섬의 환경과 현실에 맞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내륙의 관점 혹은 사무실의 관점이 아닌 현장 중심의 정책이 절실합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에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정하고 이전보다 더 높은 섬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 주민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번 태풍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섬 현실에 적합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총리실 혹은 대통령 직속의 섬 특별 기구 설립이 절실합니다.

독도와 동해를 노래하는 대표적인 노래인 한돌님의 <홀로아리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울릉도, 섬 주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울릉도 주민도, 섬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9월의 소식

1) 지난 8월 21일에 경상북도가 개최하고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 및 경주시 남북교류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북 우호도시를 통한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추진전략" 특별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배진석 경북도의회를 비롯하여 약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함께하신 회원님들, 강의로 섬겨주신 회원님들,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세미나 단체사진)

2) 기쁜 소식 전합니다.

저희 포럼에 일곱 분의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 ① 송영길 -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장
- ② 현한나 - 캐나다 토론토 하나드림 총무
- ③ 이정림 - 캐나다 토론토 하나드림 회원
- ④ 백원선 - 미국 미시간 앤아버 영어교사
- ⑤ 강경숙 - 동국대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⑥ 김호용 - 미국 LA복음연합감리교회 목사
- ⑦ 최기식 -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3) 앞으로 저희 포럼에 관련된 출판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자 8월 31일에 <도서출판, 울독>의 출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4) 한동해 포럼에 정환목 고문님에 이어 동북아 공동체문화재단의 이승율 이사장님께서 신임 고문으로 추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정성모 포항공대 교수님과 이명훈 정림건축 부사장님이 신임 자문위원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승율 고문님)



(정성모 자문위원님)



(이명훈 자문위원님)

5) 매달 15일에 발간할 뉴스레터 <울독>에 우리 포럼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컬럼이나 공지사항이 있으면 포럼 공식 메일 (OneEastSea.Forum@gmail.com) 또는 안정윤 연구원(ahn123@handong.edu)에게 매달 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6) 한동해 포럼이란?

① 소개글



② 재정 현황



7) 회원가입 안내

① 입회 신청서



② 정관

